

금요 수필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의 추억

연마 전에 모처럼 오랜 기간 부부모임을 하는 네 가족이 함께 모여 1박 2일간 통영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요즘은 부부모임을 해도 각자의 삶에 바쁘다 보니 온전히 부부 모임에 모두 함께 참여할 일이 흔치 않았지만, 이번 모임에는 모든 구성원이 100% 참여하여 더 의미 있는 여행이 되었다. 이번 여행은 나와 집사람에게는 소중한 선물 같은 아름다운 여행이었다. 모임 구성원들이 여행지를 통영으로 정한 이유는 단순했다. 나와 모임 구성원들에게 통영은 남쪽 바닷가의 도시, 싱싱한 해산물과 예술의 향기가 넘치는 고장이며 무엇보다 이순신 장군과 깊은 인연을 지닌 도시였기 때문이었다. 내 집안의 방계 조상 할아버지인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통영 계승당의 이야기는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들어왔고 제 마음을 뜨겁게 했다. 그래서인지 통영이라는 이름은 내게 늘 각별한 특별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아침 일찍 전주에서 승합차로 네 가족이 출발해서 통영에 도착하여 통영의 유명한 나전칠기를 전시한 시립 미술관을 비롯하여 이곳저곳을 돌아보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저녁 시간에 들른 중앙시장 횡집에서 먹었던 감칠맛 나는 싱싱한 회는 아직도 그 훌륭한 미각을 살리는 맛을 잊을 수 없다. 바닷바람에 실려 온 듯한 신선한 향, 입안 가득 퍼지는 통영 바다의 싱싱한 생선의 깊은 맛은 그 어떤 고급스러운 음식보다도 친근한 맛으로 내 뇌리에 진하게 남아 있다. 중앙시장 골목에서 낚은 알치마를 입고 싱싱한 횡집을 팔던 횡집 아주머니의 미소 짓던 아름답고 친절할 모습 또한 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여행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 바로 동피랑 벽화마을이었다. '동쪽 비탈'을 뜻하는 동피랑 마을은 처음에는 개발을 위해 철거 위



이만호 수필가

에 놓인 달동네였다고 한다. 그러나 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협업으로 진행한 벽화마을 변화 프로젝트로 인해 오늘날 통영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거듭나서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속절없이 무너져 가던 판자촌 마을이 예술을 입고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 자체로도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한때 가난과 고단함의 상징이자 흔적이었던 동피랑의 다소 거대한 언덕의 골목길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웃음과 추억을 남기는 가장 소중한 통영의 관광경소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다. 이곳에서 서울 관악구 봉천동 판자촌의 기억을 떠올렸다. 전주공업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 영등포 문래동 공업단지에 있던 대한공학 주식회사에 취업하여 잠시 직장생활을 하던 시절, 이모님이 사시던 봉천동 집을 자주 드나들었다. 좁은 골목, 낡은 지붕, 그리고 그 속에서도 곳곳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내 청춘의 소중한 한 장면으로 남아 있다. 봉천동은 재개발로 사라진 지 오래되었지만, 동피랑 벽화마을은 과거의 흔적을 지우지 않고 예술과 문화로 승화시키고 아름답게 지켜내어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정겹고 더욱 값진 공간으로 느껴졌다. 동피랑 골목 골목마다 그려진 벽화들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파란 고래, 천사 날개, 바닷가 풍경을 담은 그림들은 아이들과 젊은 연인들에게 추억을 남기는 아름다운 포토 존이 되어 주고 있었다. 나에게

는 주민들의 삶과 희망을 품은 또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로 다가왔다.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었던 좁은 골목길이 이제는 작은 미술작품 전시장이 되어, 발걸음을 멈출 때마다 미소와 사색을 함께 안겨주는 명소가 되어 있었다. 지금은 높은 곳이기에 땀을 조금 흘리며 언덕길을 오르다 보면 마을 꼭대기에 자리한 동포루 전망대에 닿는다. 이곳은 조선시대 통영성의 동쪽 군사 요충지로, 임진왜란 당시 한산대첩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역사적 장소다. 지금은 누각으로 복원되어 여행객들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곳에 서 있으면 단순한 전망대를 넘어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고단한 역사의 숨결이 느껴진다. 동포루에 오르면 탁 트인 통영항과 한려수도의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진다. 바람결에 살려 오는 파도 소리는 마치 수백 년 전 이순신 장군의 명령 소리를 대신 들려주는 듯했다. 날씨가 맑은 날이면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지고, 비라도 내리는 날이면 항구 위로 안개가 내려앉아 몽환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가파른 언덕을 오르느라 숨이 찼던 순간도, 그 풍광을 마주하는 순간이면 오히려 더없이 값진 수고였음을 깨닫게 된다. 바로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동피랑 벽화마을 방문이 '통영 여행의 백미'라 부르는 것이리라. 통영 여행의 즐거움은 풍경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시장에서 맛본 꿀벌의 달콤함, 아이들이 손에서 놓지 않던 와플 아이스크림 '와플'의 시원한 맛은 이번 여행의 또 다른 행복이었다. 눈이 즐겁고 입이 즐거운

여행, 그야말로 오감이 충만한 여행이었다. 그러나 동피랑에서의 시간은 단순히 즐거움만이 아니었다. 골목골목마다 담긴 삶의 흔적을 보며, 이곳에서 살아온 이들의 고단한 일상과 그 속에서도 꿋꿋이 지켜낸 희망을 생각하게 되었다. 한때 철거의 위기에 몰렸던 마을이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명소가 되었듯, 우리 인생 또한 어려움을 이겨낼 때 비로소 새로운 가치를 빛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통영은 단순한 먹거리 위주 목적의 관광지라 아니다. 예술과 삶이 공존하고, 역사가 현재와 살아 숨 쉬고 이어지는 아름다운 미항의 특별한 향구도시다. 동피랑 벽화마을을 걷는 순간, 나는 선조들의 발자취와 함께 나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동시에 미래의 희망을 그려보게 되었다. 나는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 또 다시 통영을 찾고 싶다. 다시 동피랑 마을 언덕에 올라, 탁 트인 바다와 항구를 내려다보고 싶다. 그리고 그 속에서 또다시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만나고 싶다. 산촌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더 바다는 그리워하는 지 모르지만 나에게 는 바다가 참 좋다. 아직 통영을 가보지 않은 이들이 있다면 아름다운 항구도시 세계적 미항인 통영항에 꼭 한번 다녀가라고 권하고 싶다. 그리고 동피랑 벽화마을의 골목길을 걸으며 알록달록한 벽화와 푸른 바다를 함께 바라보는 순간, 당신은 분명 통영의 진정한 매력을 알게 될 것이다. 통영은 여행객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마음에 오래 남는 '도란도란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의 도시'이자 '예술의 마을'이고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바움의 고향'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말하고 싶다. "또다시 가고 싶은 곳, 그곳이 바로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을 비롯한 아름다운 풍광을 간직해 통영항이다."

사설

올해의 사자성어 '변동불거'

올해의 사자성어(四字成語)는 교수신문이 지난 한 해 동안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선정한다. 2001년에 처음 등장했다. 선택 방법은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1단계는 40명의 교수가 '올해의 사자성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교수는 2개의 추천 사자성어를 제안한다. 2단계는 추천위원회가 제출한 28개의 사자성어 목록을 '사전 조사팀' 소속 교수 30명에게 남겨 2차 예비 조사를 실시하고 1, 2, 3위 후보에 순위를 매긴다. 3단계는 전화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최종 조사가 진행된다.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변동불거(變動不居)'다.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뜻이다. 지난 연말 불법 계엄이 선포됐고 올봄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결국 정권이 교체됐

고 계엄의 실체를 둘러싼 공방으로 여야는 내내 치열하게 대결했다. 세상을 농락하던 고위급 인사들이 어느덧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을 드나들고 있다. 초라한 국내의 정치판과는 달리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세계인의 감성을 흔들었다. 해외에서 갑자기 날아온 K-컬처의 위력은 한국 정치의 감정을 만회하고도 남았다. 격동하는 한국 현대사의 또 한 면을 채운 을 사연이 무심하게 저물어 가고 있다. K-컬처의 성공, APEC 개최를 통해 국가 위상이 높아졌지만 국내 외적 불안 요인은 지속되고 있다. 변동불거는 한국 사회가 거센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으며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대적 메시지를 상징한다.

원로배우 김지미 별세

원로 영화배우 김지미(본명 김명자)가 별세했다. 향년 85세. 10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지미는 미국에서 숨을 거뒀다. 고인은 1957년 고등학교 시절 김기영 감독의 '황혼열차'로 데뷔해 1990년대까지 작품을 남긴 한국 영화계의 대표 배우다. 아버지를 만나러 명동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김기영 감독에게 길거리 캐스팅됐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미모로 당대 최고의 스타로 인기를 누렸다. 김수용 감독의 '토지'(1974), 임권택 감독의 '길소뜸'(1985) 등 국내 거장 감독들과 호흡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파나마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과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1961년 영화 '장희빈'에 출연한 1대 장희빈 배우이기도 하다.

출연작이 무려 700여 편에 달한다. 대표작으로 '비 오는 날의 후회 3시'(1959), '춘향전'(1961), '춘희'(1967), '토지'(1974), '길소뜸'(1985), '티켓'(1986) 등이 있다. 김지미는 연기뿐만 아니라 지미필름을 설립해 영화를 기획·제작했다. 영화인협회 이사장,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영화계 전방위로 활약했다. 전성기 시절 배우인 미모와 자유로운 결혼과 이혼으로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별명이 있었다. 그는 한평생 영화인으로 살아가는 소회를 묻자 "행복하다"고 답했다. 그는 "나는 정말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무척 행복하다. 한때는 그런 관심이 괴로하기도 했지만 행복이라고 느꼈다. 영화에 개인적인 미련은 없다"고 답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독자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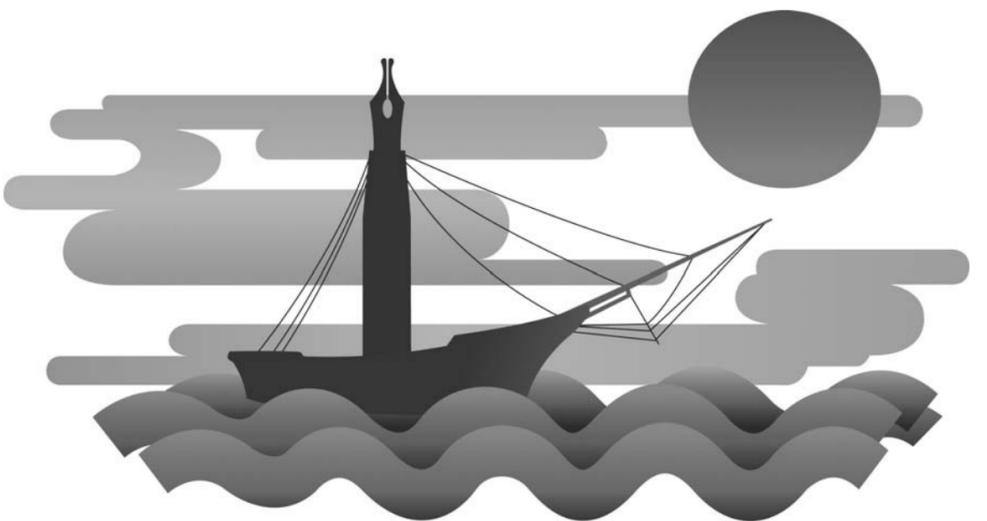
서울, 군산, 광평에서 연이어 초등학교 유괴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 유괴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거점 등 순찰 근무를 하고 있다.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초등학생 관련 사고 뉴스를 보면 아직도

초등학교 등하교 순찰 근무를 하면서
학교 앞은 위험이 넘치는 곳이다. 아침 등교 시간대, 오후 하교 시간대에 첫째, 아동범죄 관련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출동 및 강력 대응, 둘째, 학교 주변에 아무 이유 없이 배회하거나 거동이 수상한 자 발견 시 적극적으로 삼각문 및 신원확인 실시, 셋째, 교통사고 및 차량정체 방지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근무를 서면 위험한 광경을 많이 보게 된다. 초등학생들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주위를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향이 많다. 이 때 달려오는 차의 운전자가 조금이라도 주의를 하지 않는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 시설물을 보면 예전에 비해 정비 및 보강이 되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다. 펜스가 부서져 있거나, 차량 진입 방지를 불러드라 파손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학교 주변 유괴 사건 등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문, 사진 등 사진 등 증거를 확보 해야 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사진을 갱신해야 하는 등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이와 함께 다니고 낯선 사람의 유인 수법을 아이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진제전주소년경찰서 화산지구대 경위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독립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